

The Price of Steel: Human Rights and Forced Evictions in the POSCO-India Project

철강사업의 대가: 포스코 인디아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퇴거

EXECUTIVE SUMMARY

요약 본

포스코가 이 땅에서 떠나 우리가 예전처럼 사는 꿈을 끕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며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독립적인 삶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 두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 (오디샤, 자갓싱푸르) D.K 씨 (가명)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던 때는 포스코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로 인한 강제퇴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경찰의 총에 맞았으며 동생은 감옥에 구금된 C.G

2005 년 6 월 22 일,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포스코는 동부 인도의 오디샤(Odisha)(과거 오리사로 불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인디아(POSCO-India)가 종합제철소와 전용 항구, 철광석 광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120 억 달러 규모의 이 포스코-인디아 사업은 지금까지도 단일해외 직접투자로는 인도 최대의 규모이며, 12,000 에이커 (29,653 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사업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대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지역공동체가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끈질기게 비폭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항해왔기 때문이다. 제철소와 항구 시설 건설로 22,000 명의 주민이 이주의 위협에 놓이게 되고 수 천명의 생계가 파괴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오디사 주의 자갓싱푸르 지역에 위치한 제철소 및 항구 시설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기록이다. 건설현장의 지역공동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증언들은 주민들을 그 땅에서 불법적으로 추방하려는 심각한 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에 대항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지역공동체와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증거이기도 하다.

인도 당국은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폭력,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 경찰은 마을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점령하였으며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천 건의 날조된 형사고발을 한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포스코 깡패’라 부르는 자들이 마을에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지난 8 년간 이 지역공동체는 개인의 안전보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긴 채 갈혀 지내야만 했으며,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두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노동, 건강, 교육, 음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 또한 침해 당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역공동체는 심각하게 피해를 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각종 기본권의 손상은 물론 존엄성이 있는 삶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가의 억압을 통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

인도 당국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적절한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2010년 5월 바리투타(Balitutha)에 위치한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 입구에서 경찰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고무탄, 소형철탄, 라티스(곤봉) 등을 사용하여 1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고 그 중 5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한 나이든 달리트(불가촉천민)인 M.D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토지 소유권은 없지만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땅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땅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정부에게 말해주세요. 고무탄으로 우리를 겁주려고 했지만 바리투타 다리에서 있었던 일처럼 우리는 벌써 많이 다쳤습니다. 나도 총에 맞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물 속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총을 쏘아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위조되거나 불충분하게 조사된 내용으로 혐의를 받고 체포 당하거나 구금 당하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이 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인도 당국이 포스코-인디아 사업과 이에 따른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발이 3천 건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도 당국은 종종 이름이 명시된 주민 몇 명에다가 이와 관련된 수갑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방식으로 자의적인 체포를 남용하고 있다. 대부분 체포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까지 수 개월 동안 구금 당하지만 간혹 재판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피해주민들의 풀뿌리 운동인 포스코 프라티로드 상그람 사미티(PPSS)의 지도자들은 특히 경찰의 목표가 된다. PPSS의 대표인 아바이 사후(Abhay Sahoo)씨는 총 3회 체포되었고, 보고서가 발표되는 현재도 재판도 없이 수 개월째 구금 중이다.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인도 경찰이 마을을 외부와 차단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만드는 바리케이드로 주민들은 사실상 계엄령 아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이 6~7 년이 넘게 마을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PPSS 의 여성지도자인 H.K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직의 리더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42 건의 혐의를 저에게 씌웠습니다. 경찰에게 체포당하거나 포스코 강패들에 폭력을 입을까 두려워서 마을을 떠나지 못한 것이 거의 8 년째 되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치료가 너무 급해져서 한밤 중에 처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인도 당국은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조직 및 용역에 의한 폭력도 전혀 막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 주민조직 및 용역들을 “포스코 강패”라고 부르지만 우리 조사팀은 포스코와 이 “강패들” 사이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어쨌든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강패들로부터 수 차례 폭탄테러를 당했고, 적어도 네 명이 이 폭발로 사망했다. 마을에 배치된 경찰의 수가 적지 않지만 인도 당국은 이러한 사건에 만성적으로 대응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적 억압이 경제·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

경찰들이 친 바리케이드, 학교 점령, 폭력과 자의적 체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 받고 있다. 사실상 학교 및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시장에도 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주민들의 교육, 건강, 노동에의 인권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마을 주민 N.Y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사도, 사업도 모두 망쳤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없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의사를 보러 갈 수도 없지요. 그들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농사는 완전히 망쳤고,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동의 제한은 지역 주민 특히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C.G 씨는 2012년 5월 바리투타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후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팔과 어깨의 통증이 너무 큼니다. 구장(betel)을 재배해서 번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어도 이 땅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친척들을 만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의사들이 이곳으로 왕진 오게 하려면 큰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죽거나 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얼터너티브 로 포럼(Alternative Law Forum)과 델리 포럼(Delhi Forum)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은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성이 적어도 30명 이상임을 밝혔다.

불안한 환경이 정신건강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주민들은 스트레스, 불면증, 만성불안,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V.T 씨(65세)의 이야기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포스코와 정부가 무력으로 저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요.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밤새도록 마을에서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마을 마다 검문소가 있습니다.... 밤에도 그들은 우리를 체포하고 허위 혐의를 입히고 있지요.

또 다른 주민 H.N 씨는 말한다.

우울증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 구장밭을 망쳐놓아서 수입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가족이 밭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경찰은 우리 모두를 체포한 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육시설 이용도 제한되었다. 무장한 경찰이 학교 건물을 장시간 점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 등교를 하더라도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부모들은 말한다. 경찰의 학교 점령으로 인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실시하게 하는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음식과 건강 지원사업인 앙안와디(Anganwadi - 기초 아동 건강 및 영양 서비스)가 방해 받는 경우도 있다. 2011년 7월 인도의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CPCR)는 이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수없이 찾아내었다. NCPCR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국가위원회 팀에게 어린이들도 오리야어(지역 방언)로 메모를 적어 제출하였다.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몇 십만 루피로는 그들의 미래에 끼친 손해를 보상할 수 없고, 30년 수명의 제철소를 위해 오디사주가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인도법과 국제법에 의해 불법적인 강제퇴거

인도 정부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를 강제로 그들의 땅에서 추방하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에 근거해서도 불법이다. 국제법의 기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강제퇴거 대신 모든 가능한 대안을 시도해야 한다. 즉 지역공동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체계적으로 이런 기준들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의 땅과 집에서 강압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포스코-인디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전 통보를 받거나 협의를 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다른 양해각서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인도 법이 인정하는 정치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수 대째 삼림지역을 경작해 온 삼림거주 주민들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삼림권 보호법(Forest Rights Act)에 의거하여 그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삼림권 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삼림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삼림자원의 사용이나 지역주민들의 문화, 자연 유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그람 사바(gram sabha)라고 불리는 마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역공동체는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걸쳐 수 차례 이 사업을 위해 삼림지역을 사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인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 네 명의 자식과 네 명의 손자를 둔 농부인 B.D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포스코를 원하지 않는다고 정부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코 사업은 꼭 여기서 진행시킨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식량, 농작물을 빼앗아가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오디사주의 재정착 및 재이주 정책은 피해지역 주민이나 토지 전체를 보상하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일부 주민에만 일회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주하는 가족이나 개인을 포스코 사업에 고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는 전 가족 중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가족 전체가 구장나무 농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기술에 적합하지도 않은 취업이다. 포스코가 지급하겠다는 토지보상금은 전체 규모로는 막대해 보이지만, 이는 피해가족들의 1년 소득에 불과한 것으로 세대를 거치며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받았던 그들의 생활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삼림부는 제철소 및 항구의 건설승인 최종명령을 내렸으나, 인도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는 2012년 3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여러 우려에 근거하여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하였으므로 인도 정부가 진행중인 강제퇴거와 토지수용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환경재판소는 2013년 5월 다시 한번 본 사업의 환경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삼림 벌채 활동 중단을 명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거나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강제이주를 당하면 지역공동체는 더욱 피해를 입을 것이며, 결국 각종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땅을 잃는 것은 살 곳, 먹을 것, 마실 물을 포함한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잃는 것이며 생계와 삶의 존엄성을 잃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천 명이 넘는 농부, 어부, 삼림지역 주민, 노동자들은 제철소와 항구가 들어설 지역에서 오랜 시간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충분한 지하수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양질의 구장나무 잎, 캐슈넛,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여기에 주민들은 텃밭, 축산, 새우양식과 낚시 등을 더해 살림을 꾸려왔다. 삼림에 의존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십대 청소년 들을 둔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옵니다. 포스코가 여기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땅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강제퇴거를 앞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은 달리트 출신, 즉 불가촉 천민으로 예전부터 박해와 사회적 무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해오지 못한 달리트들의 충분한 발전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코 -인디아 임시수용소의 상황

이 보고서는 2007년 포스코 사업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있었던 충돌로 인해 자신들의 집을 떠나 포스코-인디아가 제공한 '임시수용소'로 이주한 52개 가족의 비참한 실상도 기록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 임시수용소로 이주한 주민들은 집, 음식, 물, 건강,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가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임시수용소 주민들을 석면으로 만든 지붕이 덮인 찜통같이 덥고 좁은 방 한 칸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용소 시설은 열기와 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주고 있다. 과거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제 하나의 우물펌프에 의존하고 있으며 목과 피부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몇 개 되지 않는 화장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몸을 씻을 때 프라이버시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

NCPCR의 공식조사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임시수용소 거주자들이 건강, 교육,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동들과 소녀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자리나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곳에 위치한 이 임시수용소는 원래 자급자족하던 가족들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시켜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조사팀에 들어온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충분한 수입원의 기회가 없는 수용소의 삶은 포스코에서 매일 제공하는 지원금에 의존하게 한다. 일인당 20 루피(한화 350 원)의 지원금은 주민들과 그 가족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한 주민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구장(betel)잎을 길러서 적어도 월 2만 루피(한화 35만원)를 벌었습니다. 이제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하루 20 루피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에도 모자란 금액입니다. 마을에 살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캐슈넛, 구장나무 잎, 쌀, 과일, 생선 등이 풍부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던 구장나무 잎은 최고의 품질이었죠. 이제는 밖에 가서 더 비싼 값을 주고 구장나무 잎을 사다 씁니다.

임시수용소 거주자들은 언제 토지보상과 재정주가 해결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고 묻자 한 주민이 말했다.

포스코는 여기 와서는 안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여기 온 52 개 가족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주민들의 최소한의 필요를 해결해주겠습니까?

주요 정책 제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연관된 다양한 행위자들 모두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정부는 수많은 국제인권규약을 서명한 국가로써 본 사업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포스코가 주재하는 대한민국 역시 포스코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포스코가 해외 사업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덧붙여 포스코는 UN 글로벌 콤팩트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 등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포스코는 이런 협정에 따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국제인권조약을 따른다는 약속을 윤리규범에 반영했다.

그러나 기업차원의 약속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포스코-인디아 임시수용소의 수준 이하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것으로 널리 보고된 인권침해 및 불법적인 토지 취득 과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신 2013 년 4 월 이 보고서를 작성한 ESCR-Net 에게 보낸 편지에서 포스코는 “포스코가 알고 있는 한 인도당국은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ESCR-Net 과 IHRC 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에게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즉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인도 정부는:

- 인권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포스코-인디아 사업을 보류하고, 강제퇴거와 토지수용을 위한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
-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및 폭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주민조직 및 용역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부터 지역공동체를 충분히 보호할 것
- 지역공동체가 노동, 충분한 음식과 건강 및 교육 서비스에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스코-인디아 임시수용소의 생활환경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며 수용소에서도 최소한의 건강, 교육,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 인도 사업을 포함한 포스코의 모든 활동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해외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사법적/비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며,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지원 및 투자를 하지 않을 것

포스코와 자회사인 포스코-인디아는:

- 인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그런 영향이 발생했을 시 이를 공개할 것

Korean Version is Unofficial – Cross Check with English Version for Official Version

-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도 사업 진행 시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이를 완화할 것
- 포스코-인디아 프로젝트에 대해 포괄적인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며 인도법과 규제에 부합하도록 할 것

덧붙여 ESCR-Net 과 IHRC 는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JP 모건 체이스, 도이치 방크와 수탁 은행인 NY 멜론은행을 포함한 포스코의 투자자에게 요청한다:

- 포스코가 포스코-인디아 사업에 대한 포괄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위험에 대해 전부 공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 포스코가 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회수까지 고려할 것

[전체 영문보고서](#)(PDF)